

“광주·전남의 풍부한 자원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병권 중기부 차관, 동신대서 청년창업 토크콘서트 시특강·1대1 멘토링 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호응’

지역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북돋우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동신대학교가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일 오후 2시30분 동신대 동강홀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차관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이주희 동신대 총장,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창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창업 동아리 학생, 예비 창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창업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지를 확산시키며 청년층 인식 전환과 지역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6일 동신대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차관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모두의 창업: 로컬 트랙’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창업 토크콘서트, AI 창업 특강, 1대1 프리뷰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차관님과 함께하는 창업 토크콘서트’에서는 이병권 제2차관이 학생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지역 자원과 전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동신대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나주배와 배꽃, 영산강 이미지를 활용한 생활기념품과 체험 키트, 나주배 성분 아이케어 미스트, 지역 특산물 기반 반려동물 펫푸드, 재할·돌봄 분야 창업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며 청년 창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지역 청년기업 대표들은 공공시장 진입, 판로 확대, 수출 연계, 시드머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진로와 창업 사이의 고민, 자금 마련, 준비 절차 등 현실적인 주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어 동신대 서영현 교수가 ‘AI로 열리는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청년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 후에는 광주·전남창조경제혁신

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1대1 프리뷰 멘토링’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피드백과 실질적인 창업 상담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권 제2차관은 “로컬 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분야”라며 “광주·전남의 풍부한 자원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지역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총장은 “창업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청년들이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해 지역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충효동 광주호 생태원에 시민 참여 탄소저감숲 조성

1826명 포인트·광주은행 후원 4800만원 투입...660㎡ 규모

광주시는 6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 생태원 일원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 활용 시민참여 탄소저감숲 조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숲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민들의 탄소중립포인트와 광주은행 후원금 등 총 4800만원을 들여 660㎡ 부지에 조성한 숲이다.

이 사업은 시민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으로 적립한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을 활용에 실제 탄소흡수원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시민 1826명의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 3510만9000원과 광주은행 후원금 19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6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일원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 활용 시민참여 탄소저감숲 조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지급하며, 현금·카드도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탄

소은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2012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로 개편돼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전국으로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혁신 최초사례 인증’을 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부금으로 조성된 숲의 가치를 공유하고, 직접 나무를 가꾸며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장흥 수문마을회, 지역 사랑 실천

인재육성 장학금 300만원 기부

장흥 수문마을회가 최근 안양면 수문항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키조개축제’ 개막식에서 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안양면 수문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뜻을 모았다.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꿈을 키우는 데 쓰일 예정이다. 수문마을회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으며, 축제와 나눔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는 지역 인재 발굴과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정홍·정영수 기자 jms03311@

광주신세계, 지역 인재육성 희망 장학금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7000만원...누적액 35억

㈜광주신세계가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지원하고자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6일 제31기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광주신세계 이도훈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부장, 박지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가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기부한 금액은 7000만원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

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 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신세계는 서구지역 인재육성을 돕고자 서구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서구장학재단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소방관 자녀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록스장학회, 한마음장학재단, 무릎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올해에만 총 1억3000만원의 희망 장학금을 지역 사회에 전달했다.

광주신세계가 희망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지역 인재들에게 전달한 올해까지 누적액은 35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신세계는 6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제31기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With Shinsegae’ (위드 신세계) 희망 장학금을 신설했다.

위드 신세계 희망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매년 5명씩 선별해, 3년

간 총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광주신세계는 위드 신세계 희망 장학금을 통해 일회성 경제적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자원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과학관, 누리집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9년 연속...장애인·고령자 등 편리한 디지털 환경 구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공식 누리집이 최근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 마크)’를 획득해 2017년부터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이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이 부여하는 국가 공인 품질 인증이다. 이 인증은 ‘디지털 포용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부여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과학관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왔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웹 접근

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시각·청각·이동성·인지 분야 등 총 33개 항목의 전문가 심사와 전방·저시력·뇌병변 사용자 평가 10개 항목에서 종합 준수율 100%를 기록했다.

이번 인증을 준비한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 장효정 연구원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차별 없이 과학문화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불편 없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디지털 과학문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식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인입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감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motto로 구당침·뜸 수감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뜰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지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3월 21일)

48년생 구태를 벗어던져 참신함을 추구한다
60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쓴다
72년생 그 일은 내 힘으로 극복한다
84년생 충고 듣지 않고 조언에도 무관심한 날
96년생 남자 문제에 주의하라
51년생 짐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사업상의 많은 이익이 생긴다
75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7년생 처리 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99년생 끈기와 노력이 절실하다
54년생 순조로운 일들이 불투명해지는 날
66년생 계약이 성사되는 운
78년생 말을 아끼면 복이 될 것이다
90년생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57년생 과욕은 금을 적당히 잡으라
69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격
81년생 다시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
93년생 서로 다투면 이익이 없다

49년생 주변사람이 내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61년생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라
73년생 잔치에 가는 일을 삼가라
85년생 기회가 왔으니 꼭 잡아라
97년생 성급한 행동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52년생 그 약속이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64년생 주변 사람들과 서둘러 화해하라
76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
88년생 몸과 마음이 바쁜 하루
55년생 집안이 화목해야 재물이 늘는다
67년생 자녀의 말썽으로 힘든 날
79년생 속의하는 과정에서 강한 결론에 이른다
91년생 급한 마음이 일을 그르친다
58년생 욕심이 앞서면 실패를 하기 쉽다
70년생 멀리 도피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82년생 다른 것에 한눈팔지 마라
94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다

50년생 주변에서 구하러 시키 질투 하고 있다
62년생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 쉽다
74년생 변화의 폭이 클 것이다
86년생 가족이 불어날 확률은 운
98년생 일은 욕심이 있어야 배운다
53년생 자녀의 승진 또는 부당성 취득 할 운
65년생 원가치 출장은 금물이니 미루라
77년생 배를 수룩 효과 크다는 것을 알라
89년생 지인과 다툼이 관재수로 발전 한다
56년생 고집을 버리고 아랫사람과 대화하라
68년생 배우자를 응서하고 감싸 주라
80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92년생 큰 인체의외의 거리가 성사 될 것이다
59년생 말 수를 많이 하게 될 운이니 자중하라
71년생 해를 자 소용이 없으니 아예 포기하라
83년생 끝맺을 만큼은 알찬 것이다
95년생 비라는 대로 이뤄진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